

2020 년 5 월 17 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1]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v.15a)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

‘회개하라 천국(하나님의 나라)이 가까웠느니라’ (마 4:17)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첫 선포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를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 ‘때가 왔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바람에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진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창조의 목적이란 피조계와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참된 것과 선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개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거나,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성막 등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거나 사람의 내면을 움직여 이끄십니다.

예: 출애굽 사건 - 모세를 세우심, 열재앙, 홍해 갈라짐, 광야에서 인도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곳을 통해 에덴을 상기시키셔서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살았을 삶을 율법(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심.

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새 세계(시대)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새 세계(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구주)로서 사랑과 순종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나라를 어떻게 받나요?

[2]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딤후 2:4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일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무시하는 데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1) 회개하라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침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뉘우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 은총으로서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렇다고 해서 뉘우침이라는 양심의 활동만으로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방식과 신념(core belief)의 전환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식이 옳다는 신념, 즉 유교적 신념, 이념적 신념, 자기 중심적 신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신념에 의거하여 살다가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만나면 자기 신념으로는 구원받고 진리를 알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방향전환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급하는 사랑과 선한 것을 고대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삶의 정황을 만나면 옛 신념체계로 돌아가려는 본성적 성향과 치열하게 싸워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는 반복적인 회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방향을 잡았다면 그 다음은 순종의 삶으로 특징지어져야 합니다.

(2)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과 자연과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복음에 의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평생 지속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방향전환)하면 당장에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고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시작이며 과정의 핵심임을 스스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축복의 선포의 말씀이 모두의 영혼을 장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볼 것>

1. 당신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여 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본문 말씀을 청중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될까요?